

고명한 교수, 의료기기의 날 대통령 표창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고명한 교수가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연구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고명한 교수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제19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날은 의료기기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과 함께 전북대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운영을 이끌며 국내 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09년 전북대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부센터장을 맡은 데 이어 2015년 보건복지부 국가과제인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하며 산·학·연·병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170여 편의 논문과 83건의 의료기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5건과 50여 건의 의료기기 국책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2023년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제인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사업 총괄책임자를 맡아 인공지능(AI), 로봇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가상현실 기반 통증진단기기는 2026년 미국 CES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상근 기자

국제무대 경쟁력 입증

임실군청 사격팀 추가은, 민현 개최 ISSF 월드컵 여자 10m 공기권총 '銅' 시니어 국제대회 개인전 첫 메달 획득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 추가은 선수가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6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 라이플·피스톨 대회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뮌헨 올림픽사격장에서 개최된 올해 두 번째 ISSF 월드컵 대회로, 세계 각국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추가은 선수는 여자 10m 공기권총 예선에서 583점(19X)을 기록하며 출전선수 128명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예선에서는 99점, 98점, 96점, 98점, 98점, 94점을 기록하며 출전 선수 중 최고 성적을 거두는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어 열린 결선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220.2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결선에 진출해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국제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메달은 추가은 선수의 시니어 국제대회 개인전 첫 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추가은 선수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으며, 꾸준한 노력

과 훈련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추가은 선수는 "시니어 개인전 첫 메달을 획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오는 9월 개최되는 아시치·니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더 높은 시상대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실군 관계자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추가은 선수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청 사격팀이 국내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새만금공, 호국보훈의 달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 임직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전북 임실에 위치한 국립임실호국원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는 나경균 사장을 비롯해 공사 이사, 부부장, 실·처장 등 총 23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사 임직원은 헌화 및 분향 묵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참배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공사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조적문화에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기자



전은, N-UNITED 대학생 마케팅 경진대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은행은 전북대학교와 함께 제34회 N-UNITED 대학생 마케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N-UNITED 대학생 마케팅 경진대회는 지방 국립대학교 연합 마케팅 동아리들이 순차적으로 주관하는 전통 있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전북대학교가 주관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지역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펼쳤다. 전북은행은 이번 대회에 협력 기업으로 참여해 실제 은행 현안을 기반으로 한 미션을 제공했다.

대회에는 전북대학교, 경복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각각 2개 팀씩 총 8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북은행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심사는 새로운 시각과 실현 가능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 특화 마케팅 전략'을 제안한 부산대학교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YOUTH 적금 마케팅 전략을 발표한 충남대학교 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축산물 재방문율 제고 방안'을 제시한 충남대학교 팀에게 돌아갔다. 수상팀에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다. /오상근 기자

순창군, 고독사 위험가구 대상 수납정리 지원

순창군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놓인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수납정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재정강박, 우울감,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읍·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20가구이다. 대상 가구에는 수납정리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정리정돈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 지원, 방역소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환경 정비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스스로 정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납정리 지원사업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가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함께 걷는 행복한 길

남원시보건소, 재가 장애인 나들이 행사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6월 4일, 평소 이동 불편으로 외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나들이 행사를 추진해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장애인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소통하며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 장애인과 보호자, 보건소와 남원의료원 인력 등 총 56명이 참여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참가자들과 보호자 및 직원을 1:1로 매칭해 세심하고 안전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첫 일정으로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화려하고 이색적인 보석 전시를 관람하고 박물관 주변을 산책하는 등 즐겁게 보냈으며, 2차 일정으로 일제강점기 곡물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원주군 '심례문화예술촌'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겼다.

행사에 한 참가자는 "직원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안심하고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고마운 하루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들이 사회적 장벽에서 벗어나 광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기자 순창군자봉센터장, 적십자 성금 기탁

이기자 순창군자봉센터장이 4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이 센터장이 전북도민일보가 주최한 제28회 친필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민간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받은 성금 중 1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수상으로 받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 센터장은 1983년 9월 대한적십자사 순창강천봉사회에 입회한 이후 2026년 6월 기준 42년간 총 71,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취약계층 지원, 희망풍차 결연활동, 재난구호 활동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적십자 봉사 순창군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는 순창군자봉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기자 순창군자봉센터장은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하며 만난 이웃들과 42년간 함께해 준 봉사회원들, 배려해 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밀물에 고립된 어패류 채취객 2명, 신속 구조로 위기 넘겨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갯벌 한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2명이 119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게 구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3일 오후 1시 37분께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석포수문 인근 갯벌에서 물이 차오르며 고립된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는 "바다에 나간 2명이 물이 차오르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 격포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들(소방위 임순택, 소방장 김용은, 소방교 박노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 대상자 2명은 밀물이 차오른 갯벌 안쪽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은 이미 구조대상자 주변까지 바닷물이 차오른 상태였고, 밀물은 계속해서 갯벌 안쪽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밤이 빠진 상태에서 물 높이까지 높아지면 이동이 더 어려워지고 저체온, 탈진 같은 2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즉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갯벌로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서 구조대상자 1명은 먼저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1명은 허반신까지 갯벌에 깊게 빠져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물이 차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약 100m 길이의 갯벌을 지나 바닷물이 차 있는 지점까지 진입했다. 갯벌은 발을 내딛을 때마다 몸이 쉽게 빠지고 이동 속도가 느려지



는 특성이 있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대원들은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이동했다. 이후 구조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가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한 뒤 안전하게 갯벌 밖으로 구조했다. 구조는 신고 접수 33분 만인 오후 2시 10분께 완료됐다. 구조된 2명은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중 물이 빠르게 차오르면서 이동이 제한됐고, 이후 갯벌에 발이 빠지며 스스로 나오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직후 이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 /오만호 기자



남원 금동, 민관협력으로 취약계층에 희망 바람

금동의 밀착형 '소통행정'과 지역 업체의 따뜻한 기부 활동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며 현장 중심 복지행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금동은 지난 5월 27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생활상태를 점검하던 중 선봉기 고장으로 후서기 운영질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발견했다.

마침, 이 시기에 맞춰 삼성스토어 공설시장점(대표 김경찬)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선봉기 10대를 금동에 기탁한 상태였으며, 금동은 지체 없이 해당 물품을 폭염 취약계층 가구에 신속하게 연계 지원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상황을 빠르게 해결한 것이다.

선봉기를 지원받은 주민은 "선봉기가 고장 나 다가올 더위가 막판했는데, 꼭 필요한 시기에 새 선봉기를 지원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교육청·고용노동부 전주시청, 직업계고 취업 지원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시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지역 정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북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시청은 4일 '직업계고 진로·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실습 지원과 학교별 취업지원 체계 구축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노동부 전주시청은 취업 준비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진로 설정과 직무 탐색을 위한 기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취업 후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상근 기자